

다카마쓰의 풍경 속 야시마

야시마는 그 독특한 평탄한 지형 때문에 옛날부터 랜드마크로서 친숙해졌습니다. 다카마쓰시가 탄생하기 훨씬 전부터 야시마는 신성한 장소이자 방위의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세토 내해의 전망을 보러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 대지(臺地, 주위보다 고도가 높고 넓은 면적의 평탄한 지형)는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는 모습 때문에 다카마쓰의 풍경 중에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많은 지역 사람들에게는 고향과 안전한 항해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야시마는 다카마쓰 시내의 거의 전역에서 보입니다. 낮에는 다카마쓰 시내의 고층 빌딩 뒤에 있는, 하늘에 떠 있는 커다란 녹색 공원 같습니다. 밤이 되면 멀리에 있는 대지의 모습이 시내로 다가와 보이며 바닷바람을 막아줍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갑자기 안개가 끼어 시코쿠 88 성지 순례길의 순례자나 하이킹을 하는 사람이 애를 먹기도 하지만 멀리서 보면 야시마는 무척 아름답습니다. 가을에는 산의 나무들이 불타오르는 듯한 색으로 물들며, 겨울에는 때로 눈이 쌓이기도 합니다.

고원의 형태는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북쪽이나 남쪽에서 보면 꼭대기의 평탄한 부분이 보이지 않게 되어 일반적인 원뿔형 산처럼 보입니다. 야시마의 독특한 대지(臺地) 실루엣을 바라보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바다입니다. 다카마쓰에서 세토 내해의 섬들이나 고베까지 가는 페리를 타면 야시마의 우아한 형상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